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이 시험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황정훈(黃正勳)** · 이재규(李在珪)*** · 박현아(朴賢雅)**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시험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에게 시험준비 기간 동안 독서방법, 시험불안관리, 만족지연, 급우와의 협력, 시간계획 및 관리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보다 효율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시험준비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은 충청남도 C시 소재 중학교 1학년 2개 반 44명(실험집단, 24명-남학생 12명, 여학생 12명, 통제집단 20명-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이었다. 실험집단에게는 요구조사와 예습과제 부여(20분 소요),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45분 소요), 3회에 걸쳐 각 5분 동안의 추수상담(15분 소요)을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에게는 담임교사에 의한 일반적인 시험 준비교육 이외에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사전검사는 실험처치 2일 전, 사후검사는 실험 처치 3주 후에 각각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은 실험집단의 시험준비행동 중 일부를 유의하게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은 실험집단의 시험준비행동 전체, 독서 방법, 시험불안관리 행동을 유의하게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이 시험준비행동 개선을 위한 유용한 생활지도와 상담의 한 방법임을 시사하였다.

■ 주요어 :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 시험준비행동

* 본 연구는 황정훈(2007)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 교신저자: 이재규 /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 TEL: 041) 850-8196, 010-8700-8420 / E-mail: blackmirror@kongju.ac.kr

I. 서론

시험준비행동은 시험 준비기간 동안 학업성취를 위해서 학생 스스로 시험준비와 관련된 인지, 정서, 행동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재규, 2005b).

일반적으로 성공적 학업성취는 긍정적 자아개념, 또래지위, 부모-자녀 관계, 진로개척 등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학업성취는 동일영역에 대한 부적상관을 가진다(문은식, 김충희, 2003; 채영신, 2005; 황혜연, 2006). 이렇게 학업성취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평소 학생들의 학습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시험준비 기간동안의 준비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구본용, 이명선, 조은경, 1994). 시험 준비기간은 평소 학습상황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학습시간 부족, 학습량 증가, 학업성취압력 증가, 교우 간 경쟁 등을 더욱 더 심하게 경험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제약요소로 인해 시험공부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간계획 및 관리의 곤란, 읽기와 요약하기의 곤란, 집중력 및 암기력 저하 등과 같은 시험공부와 관련된 인지, 정서 및 행동의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김영진, 1998; 변영계, 강태용, 2003).

또한, 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최소한 두 번 이상의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시험 상황은 학생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피할 수 없는 시험상황에서 비효과적인 시험준비행동은 부모, 교사 등의 기대감에서 비롯된 중압감, 부정적 자아개념, 시험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학업성취를 초래하며, 후속 시험에 악순환됨으로써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킨다(최정원, 이영호, 2006).

비효과적인 시험준비행동은 낮은 학업성취를 초래하고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지니게 만들어 결국 학교생활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효율적인 시험준비행동을 지닌 학습부진아들은 학업포기, 등교거부, 가출, 비행, 약물남용, 자살 등의 청소년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Larson(1988)에 의하면 청소년 범죄자 가운데 학습부진아의 비율이 26~73%이고, 정상아에 비해 이들은 두 배 정도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르며(Broder, Dunivant, Smith & Sutton, 1981), 종족, 연령, 사회 경제적 수준이 같다면 학습부진아와 집중력이 결여된 학습자가 일탈행동을 할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Keilitz & Dunivant, 1986).

학교에는 교과내용의 구조화에 따른 교사의 수업만 고려하고 있어 올바른 학습방법이나 적절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입시전략을 위한 내용구성이나 개인적 경험에 의한 단순한 기술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어 교사나 상담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 현실은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학업성취에 대한 문제와 책임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가시켜왔다.

이렇게 학업성취를 위한 시험관련 문제점이 절대 다수의 학생들에게 발생하고 있고, 문제의 출발점이 시험 준비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와 교육적 배려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재의 교육현실이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습관과 시험공부 방법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인 시험준비행동을 배우도록 안내하여 시험 준비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보다 생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구본용 외, 1994; 최정원, 이영호, 2006).

시험준비행동 개선과 관련된 집단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에는 학습기술훈련을 통한 학업성취 효과 연구(강태용, 2003; 변영계, 박한숙, 2004; 최희숙, 2005), 학습전략, 학습습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연구(박재순, 2002; 최윤숙, 2005; 오은숙, 2006) 등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사용한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8~20회까지의 회기를 취한 형태가 86%였고, 프로그램 회기단위시간은 60분 이상을 소요하는 형태가 73%였으며, 참여자의 수는 대체로 소집단으로 15명 이하인 형태가 6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프로그램들이 학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학교의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 볼 때 소수를 대상으로 한 다회기 집단상담 모형을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강정화, 2003; 이재규, 2005b).

이에 대하여 이재규(2005b)는 학교에서 집단상담을 실시할 때 학교의 상황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학교상황을 고려할 때 집단상담의 실시 조건의 특징을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1회기 진행시간은 45분 이내여야 하며, 둘째, 1회기에 참여할 집단원은 35명에서 45명 정도이고, 셋째, 집단상담 시행에서 참여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넷째, 한 주제에 대해서 1회 내지 2-3회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중학생들의 시험준비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을 구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시험준비행동에 차이를 가져오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C시에 소재한 S중학교 1학년 3개 학급에 속한 44명이다. 실험집단은 24명(남학생 12명, 여학생 12명), 통제집단은 20명(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이었다. 연구 대상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며, 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상층이 대다수였고, 연구대상 학생들은 학습과 시험준비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연구대상의 담임교사들은 학생들의 시험공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시험준비조력을 위한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았다.

2. 시험준비행동 개선을 위한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 프로그램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준비행동 개선을 위한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시험 준비에 대한 선행사례분석, 자신의 경험 탐색, 친구들과 공유,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시험준비와 관련된 인지, 정서, 행동을 반성적으로 평가해보고, 보다 효과적인 시험준비와 관련된 인지, 정서, 행동을 선택하여 적용해보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의 진행 절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이재규, 2005b), 효과적인 문제해결 모형의 핵심요소에 대한 논의(Egan, 2002), 학습과정에서의 관찰의 효과(Bandura, 1977)와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에 대한 경험적 연구(윤옥희, 2004; 이재규, 2004, 2005a; 조명희, 2004)를 기초로 하여 프로그램의 진행방법과 절차, 핵심구성요소를 설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학업성취 관련 선행연구(변영계·강태용, 2003; 변영계·박한숙, 2004; 최경란, 2004; 손영미, 2005)를 분석·종합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총 3단계 즉 “마음 준비시키기”, “집단상담 진행”, “추수관리 및 상담”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단계인 “마음 준비시키기”에서 ‘요구조사’는 집단상담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학생들이 집단상담에서 다루고 싶어 하는 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며, ‘예습과제부여’는 제한된 시간 내에 집단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이 관련된 사례와 자신의 경험을 미리 분석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집단상담 진행”에서 ‘집단상담의 주제 및 참여규칙 설명’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집단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과 계약을 맺는 것이며, ‘사례분석 토의 및 발표’는 상담의 주된 내용을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이 예습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하는 것이다. ‘자기경험 분석 토의 및 발표’는 동료들의 사례를 관찰시키고 향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심을 공유시킬 목적으로 주제와 관련

된 각자의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의하고 발표하는 것이다. ‘집단상담 마무리’는 상담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수상담일정을 정하고, 상담 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추수관리 및 상담”은 집단상담 이후의 과정으로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웹상에서 소감나누기’는 집단원들이 집단상담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웹상에 게시하고, 모둠원들이 상호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다. 둘째, ‘웹상에서 과제수행을 통한 나누기’는 집단상담을 통해 결심한 내용을 수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웹상에 올리고 모둠원끼리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셋째, ‘추수상담’은 집단상담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교실에서 동료들과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진행단계, 상담자의 과제, 시간 등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시험준비행동 개선을 위한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 프로그램

단계	상담자의 과제	시기(시간)
마음준비 시킴	1. 요구조사를 통한 분위기 조성하기 2. 예습과제(분석용 사례) 부여하기 - 제시된 사례 읽고 분석해보기 - 관련된 자신의 경험 회상하여 분석해보기	집단상담 진행 1주 전 소요시간 20분
집단상담 진행	0. 모둠 편성(수업시작 전까지 완료) 1. 주제 및 참여규칙 설명(3분) 2. 사례 분석 토의 및 발표(15분) 3. 자기 경험 분석 토의 및 발표(20분) 4. 집단상담 마무리(12분) - 추수상담 일정 정하기, 추가 상담서비스 안내하기 - 과제제시하기	수업시간 (45분)활용
추수관리 및 상담	1. 웹상에서 소감 나누기 2. 웹상에서 과제 수행을 통한 나누기 3. 추수 상담(3일에 한번씩 5분에 걸쳐서 적용경험 나누기)	시험일까지 (약 3주 동안)

3. 연구의 진행과정과 절차

본 연구의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사전준비, 45분 1회 학급단위 집단상담 실시, 추수관리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전준비와 추수관리는 일반 교사가, 집단상담은 연구자가 각각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9월 28일에 연구의 취지와 설문조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교사가 실시하였다. 집단상담이 진행되기 전에 일반교사는 프로그램 요구조사, 요구조사 분석 및 결과 발표, 상담주제와 학급상담 실시예고, 예습과제를 부여하였고, 예습과제 실행여부를 확인하고 촉구하는 한편, 프로그램 시작 전에 학급구성원을 4명 1개조로 편성한 모둠 별 배치를 하였다. 실험 집단의 프로그램 진행은 연구자가 10월 2일 2교시에 45분 동안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진행시 같은 교사가 조력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생들이 선

호하는 약간의 간식을 제공하였다. 통제집단은 담임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시험 준비교육 이외에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이 종료된 이후 약 3주 동안(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은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추수지도를 했다. 즉, 학급계시판(웹상)에 소감문과 자신의 경험을 작성하면 학급동료들이 상호 피드백 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 집단의 경우에는 동일교사로 하여금 조·중례 시간에 3일에 한번씩 5분 정도를 활용하여 시험준비행동과 관련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사후검사는 시험 직전(10월 19일~10월 21일)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로 동일교사가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

1) 시험준비행동 검사

시험준비행동 검사도구는 연구자가 제작한 것으로, 시간계획 및 관리, 독서방법, 만족지연, 예기시험불안, 시험 준비기간 중 또래협력에 관련된 시험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검사도구는 학업성취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인 노원경(2003), 이선희(2005), 최윤숙(2005), 최희숙(2005), 남지연(2006), 안현주(2006)를 참고하였고, 대학교 1학년생 73명의 중학교시절 시험 준비 경험을 분석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시험준비행동 검사지의 용어가 중학생들에게 쉽게 이해되는지에 대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 5명이 검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험준비행동 검사지는 총 7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시간계획 및 관리 21문항, 독서방법 14문항, 만족지연 12문항, 예기시험불안 16문항, 시험준비기간 중 또래협력 11문항 등 5개영역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에 대한 응답은 6단계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는 6점, '그렇다'는 5점, '다소 그렇다'는 4점, '다소 아니다'는 3점, '아니다'는 2점,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배점하여 채점했으며, 이 중에서 부정 진술문항은 총 28문항으로 역으로 환산하여 처리하였다.

시험준비행동 검사 총 74문항 중 주관식 문항을 제외한 전체(71문항) Cronbach's α 는 .9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험준비행동의 하위영역을 각각 분석해 보면 시간계획 및 관리 21문항의 Cronbach's α 는 .81, 독서방법 14문항의 Cronbach's α 는 .75, 만족지연 12문항의 Cronbach's α 는 .76, 예기시험불안 16문항의 Cronbach's α 는 .70이며, 주관식 문항을 제외한 시험준비기간 중 또래협력 8문항의 Cronbach's α 는 .69로 나타났다.

5.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시험준비행동 개선을 위한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사전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하였다. 사전검사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집단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검사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량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프로그램이 시험준비행동 개선에 미친 영향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변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처리하였을 때, 시험준비행동 개선을 위한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실험집단에서 “시험준비행동 전체 사후검사점수”, “독서방법 사후검사점수”와 “시험불안관리 사후검사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상담에 따른 시험준비행동 점수의 공변량 분석

영역	집단 유형	N	사전검사		사후검사		변량원	SS	df	MS	F
			M	SD	M	SD					
시험 준비 행동 전체	실험	24	3.71	.56	3.92	.50	사전검사 집단유형	6.33	1	6.33	75.56***
							오차	.58	1	.58	6.97**
	통제	20	3.47	.60	3.52	.46	오차	3.43	41	.84	
							합계	10.34	43		
독서 방법	실험	24	3.56	.80	3.81	.71	사전검사 집단유형	13.25	1	13.25	85.48***
							오차	1.28	1	1.28	8.26**
	통제	20	3.55	.83	3.47	.65	오차	6.36	41	.16	
							합계	20.89	43		
시험 불안 관리	실험	24	3.82	.71	3.97	.76	사전검사 집단유형	3.33	1	3.33	9.96**
							오차	1.50	1	1.50	4.48*
	통제	20	3.48	.61	3.45	.44	오차	13.70	41	.33	
							합계	18.53	43		
만족 지연	실험	24	3.59	.80	3.96	.82	사전검사 집단유형	10.29	1	10.29	35.02***
							오차	.67	1	.67	2.29
	통제	20	3.35	.78	3.56	.60	오차	12.04	41	.29(b)	
							합계	23.00	43		
시간 계획과 관리	실험	24	3.59	.78	3.75	.63	사전검사 집단유형	10.08	1	10.08	71.88***
							오차	.16	1	.16	1.13
	통제	20	3.31	.68	3.44	.59	오차	5.75	41	.14(b)	
							합계	15.99	43		
시험 준비 또래 협력	실험	24	4.31	.99	4.39	1.00	사전검사 집단유형	16.89	1	16.89	41.09***
							오차	.47	1	.47	1.13
	통제	20	3.92	.69	3.89	.75	오차	16.85	41	.41(b)	
							합계	34.21	43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시험준비행동 전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처리하였을 때,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에 따른 시험준비행동 전체 사후검사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97, p<.01$). 둘째, 시험준비행동 중 독서방법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처리하였을 때,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에 따른 독서방법 사후검사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26, p<.01$). 셋째, 시험준비행동 중 시험불안관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처리하였을 때,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에 따른 시험불안관리 사후검사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48, p<.05$). 하지만, 만족지연, 시간계획 및 관리, 시험준비 또래협력의 영역에서는 사전 검사보다 사후검사가 다소 향상되긴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IV.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효과적인 시험 준비를 위한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을 구안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이재규(2005b)에 의해 제시된 학급단위 단회 문제해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고, 구성된 프로그램을 연구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교사의 협력을 받아 연구자가 중학교 1학년 1개 학급에 적용하였다. 시험준비행동 개선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준비행동 검사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실시하고, 사전검사를 공변량으로 처리하여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결과를 간단히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준비행동 개선을 위한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은 시험준비행동 전체, 독서방법, 시험불안관리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다. 둘째, 시험준비행동 개선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은 만족지연, 시간계획 및 관리, 시험준비 또래 협력 등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것은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시험준비행동 개선에 부분적으로나마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이재규(2005b)와 Bandura(1977)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재규(2005b)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은 자기 행동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Bandura(1977)는 타인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관찰은 관련된 행동의 학습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집단상담을 통해서 시험준비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학습기술 훈련 등을 통해서 학습습관·학습태도·학습전략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학습관련 연구들(나효희, 2000; 박재순, 2002; 오정훈, 2005; 최윤숙, 2005; 최희숙, 2005; 김은희, 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은 중학생의 시험준비행동 중 일부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다인수 학급 체제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시험준비행동을 가르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진행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경험을 가진 연구자(대학원생)에 의해서 진행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프로그램은 교육현장의 일반교사들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임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이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다는 선행연구(이재규, 2005a; 조명희, 2004; 윤옥희, 2004)와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은 중학생들의 학업문제 해결에 유용한 접근방법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과 관련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교현장에 적용되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대상을 달리하여 추가적으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간고사를 앞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실시 3주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았는데, 프로그램의 효과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프로그램의 효과가 성적 향상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정화(2003).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관한 지각.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 강태용(2003). 학습기술 훈련이 고등학생의 학습습관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구분용, 이명선, 조은경(1994). 청소년의 수험행동.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영진(1998). 효율적인 학습상담법. 서울: 양서원
- 김은희(2004). 학습기술 훈련이 초등학생의 학습습관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나효희(2000).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학업자아개념·태도·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남지연(2006). 자기효능감, 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전략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노원경(2003). 중학생의 시험불안 영향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문은식·김충희(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1), 271-288.
- 박재순(2002). 학습습관 향상 프로그램이 고교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박한숙(2000). 학습기술 훈련이 초등학교 초등학생의 학습태도,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변영계·강태용(2003). 학습기술, 공부를 잘하는 방법. 서울: 학지사.
- 변영계·박한숙(2004).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초등학생용. 서울: 학지사.
- 손영미(2005). 중학생의 성취목표, 학업동기, 자기조절 학습전략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안현주(2006). 고등학생의 시험불안에 대한 학업적 자기조절동기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오은숙(2006). 자기조절 학습전략 훈련이 학습부진아의 학업 자아개념과 시험불안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오정훈(2005). 학습습관 형성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학습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윤옥희(2004). 학급에서의 단회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부모의 이혼문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 이선희(2005). 성취목표, 학업동기, 학습전략이 학업성취에 주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이재규(2004).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방과후 스트레스 감소와 학급응집성 증진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5(4), 37-54.
- 이재규(2005a). 학급단위 단회 집단상담의 효과 연구: 중학생의 용돈 요청과 수령의 행동과 정서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6(4), 199-221.
- 이재규(2005b). 학교에서의 집단상담-실제와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조명희(2004). 학급에서의 단회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맞벌이 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 채영신(2005). 학습부진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최경란(2004).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습의욕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최윤숙(2005). 명시적 학습습관 개선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 자아개념,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최정원, 이영호(2006). 학습치료 프로그램 ⑧ 시험불안 다루기 전략 및 시험전략. 서울: 학지사.
- 최희숙(2005).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황혜연(2006). 교사효능감 및 부모자녀관계 변인과 고등학생의 학습동기, 학습전략, 학업성취도와 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N.J.: Prentice Hall.
- Broder, P. K., Dunivant, N., Smith, E. C., & Sutton, P. L.(1981). Further Observations on the link between learning disabilities and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838-850.
- Egan, G.(2002). *The skilled helper: a problem-management and opportunity -development approach to helping(7th ed)*. Pacific Grove, Calif.: Brooks/Cole Pub.
- Keilitz, I. & Dunivant, N.(1986).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disability and juvenile delinquency : Current state of knowledge.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7(3), 18-26.
- Larson, K. A.(1988). A Research Review and Alternative Hypothesis Explaining the Link Between Learning Disability and Delinquency.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1(6), 357-363.

- * 논문접수 2009년 10월 21일 / 1차 심사 2009년 11월 20일 / 2차 심사 2009년 12월 5일 / 게재승인 2009년 12월 14일

- * 황정훈: 2007년 공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공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학생임.

- * e-mail: ljhhwang@hanmail.net

- * 이재규: 200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임. 학교에서의 집단상담 실제와 연구(서울: 교육과학사), 학교상담의 이론과 실제(서울: 학지사), 한국적 3차원 학교상담(서울: 학지사) 등의 저서가 있음.

- * e-mail: blackmirror@kongju.ac.kr

- * 박현아: 2007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공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임.

- * e-mail: pha0819@hanmail.net

A Study on the Effect of One Session Group Counseling in the Classroom on Students' Examination Preparation Behaviors and Academic Achievement

Jeong-Hoon Hwang* · Jea-Kyu Lee* · Hyun-a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one session group counseling in the classroom on students' examination preparation behaviors and academic achievement. Subjects were 44 students of 7th grade in Chunan City Chungnam Province of Korea. The research design was pretest-posttest with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ere treated in on session group counseling during 45minutes and pre-session and followup session. The instrument of measurement used in this study were 'Exmination Preparing Behaviors Sc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Examination preparing behaviors total score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Specifically, Reading skill scores and test anxiety management scor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In conclusion,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One-session group counseling in the classroom be used as an effective way for student's examination preparation improvement.

Key words: One-session group counseling, Examination preparing behaviors

*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ducation